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종보

총기 45년
2016년 9월 1일
음력 8월 1일
월 간 발 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0년 제202호

종조멸도절 종령법어

오늘은 정통밀교의 대광명을 이 땅에 드리우고 즉신성불과 불국정토의 대원을 이루고자 총지종을 창종하신 종조 원정대성사님께서 열반에 드신지 3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먼저 총지종의 종지를 받들어 불철주야 수행정진과 교화에 전념하시는 승직자 여러분과 오늘의 총지종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서원해 주시고 종단발전과 중생제도를 위해 용맹정진하시는 교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많은 간난신고를 중생구제와 불국정토의 건설이라는 대원에 의지하여 합심과 단결로써 헤쳐오면서도, 흔들림 없는 종지로 오늘의 우리 총지종이 있게 된 것을 생각하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신 종조 원정대성사님과 선대 여러 스승님들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초창기 종단은 수행할 공간이 작고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스승님들의 법문을 듣기 위해 이십리 밖에서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교화 열기는 대단하였습니다.

스승님들은 열의와 사명감으로 중생교화에 임했고 교도들은 오로지 부처님 법을 믿고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닦아나가면 모든 일이 성취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용맹정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 생활수준이 풍요로워지면서 오히려 정신적인 수양을 소홀히 여김에 따라 수행정신도 많이 퇴색되고, 불공을 하는 데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예전에는 목숨을 걸고 지심으로 염송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많이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바른 계율과 청정수행으로 부처님의 정법에 따라 바르게 행해야겠다는 굳은 신심을 함양해야 합니다.

승직자 여러분들은 새로운 각오로 중생교화를 위해 끊임없는 정진으로 교도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고, 교도들은 스승님들의 법이 곧 부처님의 법이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일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과거의 껍질을 벗고 새롭게 태어납시다. 그리하여 세계에 발돋움할 웅대한 종단을 만들어 세계만방에 밀교의 수승한 법을 펼치시려고 대원을 세우신 종조 원정대성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억만 중생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36주기 종조멸도절을 맞이하여 온 종도가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가 함께하시어 무한한 복덕이 이루어지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총기 45년 9월 8일
종령 효강 합장

제8차 국제재가불교대회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The 8Th International Lay Buddhist Forum

"불교와 문화 유적의 보호, 환경보전, 그 과거와 미래"를 주제

제8차 국제재가불교포럼(International Lay Buddhist Forum, 약칭 ILBF)이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의 파당 시뎀퍈에서 거행되었다.

"불교와 문화 유적의 보호, 환경보전, 그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14개국 200여명이 참가했다.

총지종에서는 인선 통리원장과 서강 사무국장, 화령 ILBF 명예회장(총지종 중앙교육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인도네시아 대회는 인도네시아 불교협회인 붓다야나(Buddhayana) 협회에서 주관하고 인도네시아 재가불자모임인 Siddhi회에서 이 대회를 조직했다.

8월 19일에서 23일까지 진행된 이번 대회일정은 첫날의 환영만찬과 둘쨋날의 주제발표에 이어 각국 대표단이 수마트라 시뎀지역의 불교유적을 돌아보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시뎀 산악 지역을 시찰하는 일정으로 이루어졌다.

국제재가불교포럼은 불교총지종에서 2007년 처음으로 이 대회를 창설하고 이후 매년 대회를 개최하여 5차 대회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해왔다.

이후 명실상부한 국제대회로 확대하기 위하여 매 2년마다 외국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제6차 대회는 2012년 스페인 말라가에서, 그리고 2014년 제7차 대회를 일본 동경에서, 그리고 금년 제 8차 대회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게 된 것이다.

ILBF는 재가불교포럼을 표방하지만 승속의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또 불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재가자 중심의 재가불교운동을 통하여 일상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불국정토를 이 땅에 이룩하려는 염원에서 출발한 대회이다.

ILBF는 지난 10년 동안의 활동으로 이제는 국제재가불교운동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향후 국제불교계의 흐름을 이끌 대회로 성장했다.

화령 명예회장은 송별 만찬에서 회의 개최를 도와준 인도네시아 ILBF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다음 대회지인 부탄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원했다.

민족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그치지 않는 통일의 노래"

10월 1일 제5회 불교총지종 통일음악제 봉행, 부산 동해중학교 운동장 특설 무대에서

▲ 총기 41년 부산 동해중학교에서 열린 제2회 통일음악예술제

제5회 불교총지종 통일 음악 예술제가 오는 10월 1일 부산 동해중학교 운동장에서 봉행 된다. "그치지 않는 통일의 노래"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예술제는 아직도 이어지는 민족의 분단과 그로인한 남, 북 첨예한 대립을 완화하고 모두가 하나되어 부처님의 법음으로 대한민국의 국운융창을 서원하는 예술제이다.

이번 예술제는 예년과 달리 부산 지역 불교 합창단 5개 팀이 출전 기량을 선보이는 무대와 총지종 서울 마니합창단, 대구 금강 합창단, 마산 운천사 부림 합창단이 출연하여 부처님의 진리를 찬탄하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온 우주에 전해지도록 대서원의 합창을 공연할 계획이다.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는 "총기44년 부산 KBS 홀에서 개최된 제4회 공연에 이어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제5회 불교총지종 통일음악예술제를 종립 동해중학교 운동장에서 봉행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분단 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그동안 전란의 후유증을 모두 털어버리고, 세계가 놀랄 만 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남·북의 상황은 백척간두의 벼랑 끝에 서있는 것처럼 위태롭기만 합니다. 불교 총지종은 통일음악예술제를 통해 북녘의 동포들과, 부산 시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국의 교도들과 불자님들을 초대 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를 수지하시기를 서원 합니다."며 이번 행사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합창제의 실무를 총괄 지휘하는 운영위원장 수현 정사(중앙종의회 의장, 자석사 주교)는 "이번 예술제는 기획 단계부터 전 과정을 부산.경남 교구 스승님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은 있어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만큼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한 대서원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며 총지종 교도들과 불자, 부산 시민들의 함께 동참 예술제가 되기를 바랬다.

이번 행사에는 총지종도, 부산시민, 불교계 주요 귀빈,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 약 2,000여명이 동참할 예정으로 천상의 화음으로 화합의 불꽃을 올리는 자리가 될 것이다.

부산 정각사=김초랑 기자

지면안내

1면 종조멸도절 종령 법어
2면 김기자가 가다 '벽룡사 산악회'
3면 특별인터뷰 통일음악예술제 운영위원장 수현정사
5면 화령정사 국제재가불자 대회 발표 요지
6면 박물관 순례 신안해저선 발견 유물
7면 서하보살 불교문화
8면 법경정사의 밀교연재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관행을 실천해 나갑시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시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 (弘布)합시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시다.

원정 대성사 제36주기 멸도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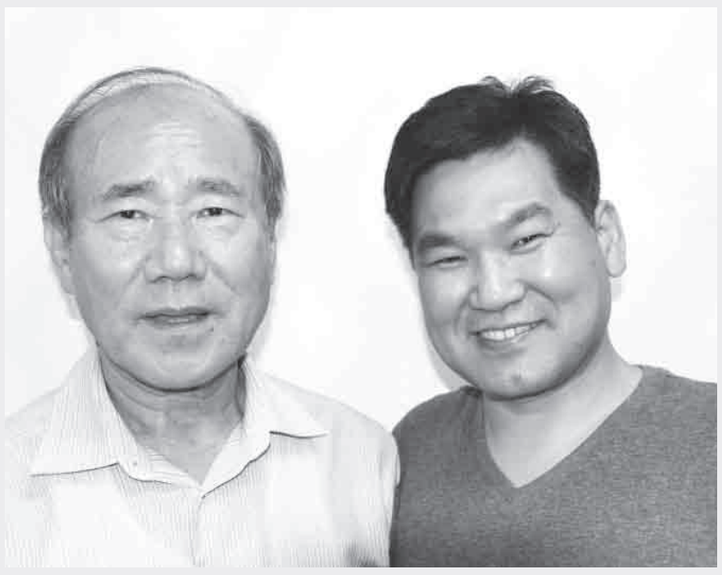
종조 원정 대성사(苑淨 大聖師)께서는 이 땅에 다시 밀교(密敎)를 꽃 피우게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밀교 중흥의 견인차 역할을 하시고,
의궤(儀軌)와 수법(修法)을 정립한 정통밀교종단 불교총지종을 창종하셨습니다.
원정 대성사 제36주기 멸도절을 맞는 우리는 대성사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종단 중흥을 위한 대역사에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일 시 총기 45 년 9월 8일 (목)
대 상 총지종 교도 및 모든 불자
장 소 총지종 원정기념관 및 전 사원

김기자가 가다

나이는 달라도 우리는 함께 가는 도반

서울·경인교구 벽룡사 산악회



▲ 회장 이종호 각자, 총무 손강의 각자

▲ 가족과 함께한 백록담 등정

▲ 민족의 영산 백두산 등정

신행의 공동체일 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8월 21일 자성일 불공을 마친 벽룡사 공양처에는 함께 공양할 잔치 국수 준비가 한창이다.

모두 국수 한 그릇씩을 식탁에 놓고 벽룡사 주교 법일 정사의 죽비 소리에 맞춰 합장하고 "이 음식에 담겨있는 한 방울의 물과 한 톨의 곡식에도 많은 중생들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욕심스럽게 먹으려는 탐심 허물 비워두고 몸의 건강 지탱하는 명약으로 생각하며 깨달음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겠습니다. 공양게를 한마음으로 외운 후 젓가락을 든다. "잘 먹겠습니다" 불공 후 함께하는 공양시간은 언제나 즐겁다. 더욱이 보살님들의 정성으로 만든 국수는 그 어떤 진수성찬도 부럽지 않다. 공양게 종조님들의 음식 공덕에 대해 감사 기도로 마무리 했다.

벽룡사는 총지종 사원들 중에는 그리 규모가 큰 편은 아니다. 대부분의 교도들은 30년 이상 신행 생활을 해온 수행의 베테랑이다. 각자님들과 다과를 같이하며 교도들의 신행 모임인 「벽룡사 산악회」와 신행담 얘기를 시작했다.

벽룡사 산악회(회장 이종호 각자, 총무 손강의 각자)는 지난 2008년 10월, 각자님들을 중심으로 당시 주교인 원당 정사와 함께 「오대산 노인봉」 당일 산행을 다녀와 산행과 신행을 함께하는 작은 모임을 만들자는 의견을 모았다. 산악회는 2009년 1월, 지금의 주교인 법일 정사가 부임하자, 본격적으로 발족을 준비하여 3월에 정식으로 발족했다.

벽룡사 산악회는 매월 세 번째 자성일 점심 공양 후에 반나절 산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 년에 두세 번 1박2일이나 종일 산행을 하고 있다. 그동안 해외 산행도 두 번 다녀왔다. 2011년에 중국 황산, 2012년에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을 다녀왔다.

특히 백두산 정상에서 안개 낀 날씨 가운데 잠깐 얼굴을 내비친 천지의 모습을 만난 벽룡사 산악회 교도들은 무한한 말할 수 없는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끼기도 했다.

젊은 사람도 오르기 힘들다는 여러 고봉(高峰)도 다녀왔다. 지리산 천왕봉, 설악산 봉정암, 덕유산 향적봉, 오대산 비로봉, 태백산 천재단, 소백산 비로봉 등 남한의 명산들은 거의 다 올랐다.

제주도 한라산 등반 때는 회원들의 가족도 동반하여 각자님, 보살님, 아들, 며느리, 손자 3대가 백록담을 오르는 진풍경도 연출했다. 또한 지역 명물 체험과 청와대, 고궁, 왕릉, 전통 사찰 참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국 사원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벽룡사 산악회를 이끄는 분은 회장 이종호 각자(70세)와 총무 손강의 각자(46세)이다. 회장 이종호 각자님은 1980년 초반부터 선대 어른들의 유지를 받들어 신행생활을 시작했다. 서대문 관성사, 동대문 밀인사를 거쳐 노량진에 정착하면서부터 벽룡사 교도가 됐다. 총무 손강의 각자는 밀양이 고향으로 일직 손씨인 종조원정대성사의 일가로 부모님이 진언기도를 통해 각자님을 얻었다고 한다.

모두가 뼛속까지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를 받고 실천하는 진언행자들이다.

회장 이종호 각자는 서울 대학교 졸업 후, 1971년 농협중앙회에 투신하여 2006년 정년을 맞을 때까지 34년간 농협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또한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들뻘 되는 총무 손강의 각자와 하나 되어 발군의 리더쉽을 발휘 하고 있다.

산악회 주요 맴버인 이평원 각자(76세)는 "산악회 활동으로 자칫 소원해 질 수 있는 각자님들의 유대 관계가 돈돈한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며 "회원들을 만나는 자성일이 기다려진다."라고 벽룡사 산악회가 신행활동의 큰 마당이 되었다고 했다. 회원들은 지리산 천왕봉 등반을 무척 어려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산행으로 꼽는다.

연령별 체력 차이를 극복하고 지리산 백무동 계곡을 출발하여 세석, 장터목, 천왕봉을 등정하고 중산리로 하산한 1박 2일간의 산행을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가는 계기가 됐다.

회장 이종호 각자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교도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높은 산의 산행은 어려 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 회원들이 참여하는 지방 여행, 둘레길 걷기 등을 주로하고, 영암 월출산이나, 보은 속리산 같은 높은산 등산은 젊은 교도님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원들의 뜻이 모아지면 해외산행도 검토중입니다."며 "지금의 산악회가 있기 까지는 매번 차량을 동원해 직접 운전해 주시는 주교 법일 정사님과 회원들의 일상사까지 꼼꼼히 챙기시는 자행정 전수님의 배려가 큰 바탕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라며 벽룡사 산악회의 계획과 승직자들의 노고에 감사했다.

벽룡사 산악회는 가족 같다. 모두가 부모이자 자식이다. 신행의 공동체일 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협동과 단결심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 광명으로 한결 같기를 기자는 간절히 서원한다. 취재=김종열 기자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관성사	인 선	8/22	20,000		무명씨	8/5	10,000	수인사	정순득	8/16	10,000		구나영	8/22	10,000
기로스승	대 관	8/22	10,000	밀행사	신정희	8/8	10,000	일원어린이집					김병관	8/22	10,000
	원 봉	8/24	10,000	밀인사	정정희	8/1	5,000		구미자	8/1	10,000		손경옥	8/16	10,000
	지선행	8/24	10,000		이기상	8/8	10,000		이준동	8/25	10,000		신용도	8/17	10,000
	밀공정	8/22	10,000		안옥진	8/8	10,000		김지영	8/25	10,000	통리원	김평석	8/22	10,000
	법수원	8/22	10,000		이성수	8/8	10,000		하재희	8/25	50,000	혜정사	최영례	8/22	10,000
	법장화	8/22	10,000		박주연	8/8	10,000		김용미	8/25	10,000		정은선	7/28	10,000
	법지원	8/22	10,000		이수연	8/8	10,000		강경화	7/26	10,000	화음사	무명씨	8/2	10,000
	불멸심	8/22	10,000	만보사	정덕순	7/29	10,000	운천사	무명씨	8/5	50,000		무명씨	8/8	20,000
	사홍화	8/22	10,000		신정희	8/1	300,000		무명씨	8/22	20,000	흥국사	지 정	8/24	20,000
	상지화	8/22	10,000	벽룡사	양정현	8/2	10,000	정각사	변순개	8/5	10,000	사원명무기명			
	수증원	8/22	10,000		양지현	8/2	10,000		탁상달	8/11	20,000		정재덕	8/16	5,000
	선도원	8/22	10,000	백월사	진 명	7/26	5,000		조성화	8/25	10,000		김갑선	8/19	10,000
	총지화	8/22	10,000		무명씨	8/2	10,000	제석사	안용준	7/28	500,000				
	안주화	8/22	10,000	선립사	심지장	8/18	10,000		교도일동	7/28	350,000				
	일성혜	8/22	10,000	실보사	이순옥	8/17	10,000	지인사	승효제	8/24	10,000				
	해 정	8/24	10,000		이순옥	8/24	10,000		허성동	8/16	30,000				
	해 정	7/27	10,000	실지사	박병성	8/16	20,000	초록어린이집							
개천사	강순시	8/10	10,000		박병성	7/26	10,000		황화성	8/25	30,000				
	전세형	8/5	30,000		이순명	7/26	10,000	총지사	박정희	8/17	10,000				
덕화사	조상효	7/26	10,000		조성우	8/3	10,000		법 등	8/1	30,000				

후원회 가입안내

7월26일부터 8월25일까지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특별인터뷰

통일음악예술제 운영위원장 수현정사

수현정사

오는10월 1일 종립 부산 동해중학교에서 열리는 제5회 통일음악예술제 행사를 진두지휘하는 운영위원장 수현 정사(중앙종회 의장, 자석사 주교)를 부산 정각사에서 만나 준비 사항을 들었다.

수현 정사님 안녕하십니까? 제5회 통일음악예술제 운영위원회 책임을 맡아 진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행사의의와 지금까지의 진행 사항을 말씀해 주시지요.

● 예. 통일을 기원하는 제5회 통일 음악 예술제는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과 경제적 안정을 통한 국민모두의 편안한 삶을 기원하기 위해서 열립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 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해 격려와 사기를 높여줌으로써 계층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 되는 화합의 자리를 마련, 지역 주민들에게 품격 있는 문화공연을 선사하여 문화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통일음악예술제는 불교총지종이 주최하고 부산. 경남교구 정각사가 주관하는 우리 종단의 가장 큰 문화 행사입니다. 부산·경남 정사님들이 주축이 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주 1회 회의를 통해 장소, 프로그램, 홍보 등 세세한 부분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마지막으로 홍보를 통해 관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일음악예술제는 종립 동해 중학교에서 열리는데 무슨 의의라도 있습니까?

● 제2회 통일음악예술제가 종립동해중학교에서 열려 부산 시민과 불자들에게 큰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특히 동해중학교 인근 재개발 사업의 완료로 학교의 주변 환경이 완전히 달라 졌습니다.

부산 지역 중산층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한가운데 학교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리모델링 공사로 시설 또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인근 주민들과 불교 총지종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교화의 계기가 되고자 동해중학교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통일음악예술제는 부산 지역 불교합창단들의 경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합창단이 참가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부산지역에서 실력 있는 5개 합창단이 참가합니다.

관음사 환희합창단(단장 이인옥, 지휘자 정필윤), 금강암 금소리 합창단(단장 김복수, 지휘자 이지영), 범어사 합창단(단장 김진숙, 지휘자 배천종) 진각종 유가 합창단(단장 정영희, 지휘자 양영승) 혜원정사 합창단(김민경. 지휘자 조창준)이 참가합니다.

각 합창단 별로 두곡을 무대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무대를 계기로 좀더 많은 합창단들이 참가하는 부산을 대표하는 합창예술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총지종 합창단은 어느 곳이 참가하는가요?

● 총지종 합창단은 경연에는 참가하지 않고, 공연만 합니다. 서울 마니합창단, 대구 금강합창단, 마산 운천사 부림합창단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입니다.

이외에도 제5회통일음악예술제가 기대하는 효과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신지요?

● 통일음악예술제는 단순한 합창 공연이나 경연이 아닙니다. 총지종은 입교개종 당시부터 진호국가 불사를 매년 상·하반기 49일 동안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안정이 제일 중요한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누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총지종 교도 뿐 아니라 부산 시민 더 나아가 우리국민 전체가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아가기를 비로자나 부처님께 음성공양으로 서원을 올리는 대 불사입니다. 많은 동참으로 부처님의 가지를 함께 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불교총지종 전 중앙종의회 의장 법장화(法藏花) 지수 49재 추선불사

총기45년 8월29일 밀인가 서원당에서 스승, 교도, 유가족 200여명 동참

총기 45년 7월 12일 화요일 열반든 불교총지종 원로 스승인 법장화 지수(세수 90세, 법납 45년)의 49재 추선불사가 8월 29일 밀인사 서원당에서 봉행됐다.

8월 29일 12시 밀인사 주교 원당 정사의 집공으로 열린 49재 추선불사에는 전국의 스승 및 교도, 유가족 200여명이 동참했다.

총지종 정통의궤로 진행된 추선 불사에서 유가족 대표 박병우씨는 고결사에서 "산보다 바다보다 높고 깊으신 그 은혜를 어찌 다 갚사 오리까"라며 부모로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극락왕생을 서원했다.

진언염송을 평생의 수행으로 삼고 교화에 매진한 법장화 지수는 수행의 도구로 삼았던 법체마저 중생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과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함으로 완전한 무소유와 공의 세계에 들었다.

1927년(丙寅)생인 법장화 지수는 1972년 총지종 중앙교육원을 수료하고 승직에 들었다. 1978년 10월 밀인지 대전수에 1984년 4월 출세간위 지수에 품서 됐다.

밀인사 주교, 총지종 유지재단 이사, 사감부장, 교정부장, 감사위원, 종의회 의원, 중앙종의회 의장 등 종단의 주요 요직을 거쳐 1994년 기로원에 진원했다.

제20회 만해대상 시상식 8월12일 열려

"만해, 평화와 행복 지속 전하길"

만해축전추진위원회(위원장 오원배)는 12일 오후 1시 45분 강원도 인제 하늘내린 센터에서 제20회 만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만해대상은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었던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의 생명·평화·겨레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평화', '실천', '문예' 세 부문에 걸쳐 빼어난 업적을 거둔 인물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올해 만해평화대상은 국제개발 NGO단체인 로터스월드·청수나눔실천회, 만해실천대상은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 스퇴거·마가렛 피사레크 수녀, 만해문예대상은 가수 이미자·이승훈 시인이 공동으로 수상했다.

유자효 시인의 사회로 진행된 시상식은 손재현무용단의 축하공연과 만해스님 기념영상 상영, 손흥기 시인의 축시,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만해축전 명예대회장 한태식(보광) 동국대 총장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강천석 조선일보 논설고문, 맹성규 강원도 경제부지사, 이순선 인제군수, 황영철 국회의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총장은 축사에서 "만해대상은 '한국의 노벨평화상'으로 불린다. 이는 자유와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경을 가리지 않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고 계신 숭고한 분들의 공로"라며 "문명을 인정하고 보다 나은 삶의 방향을 위해 용감하게 도전하셨던 만해스님처럼 인류의 보편적 가치실현을 위해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수상자분들의 선행을 마음 깊이 본받을 필요가 있다. 수상자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축하를 전한다"고 말했다.

미국 포틀랜드박물관 기탁 《송광사 오불도》 반환 합의

특별전(2016.9.3~12.4) 및 심포지엄(2016.12.3) 개최 후, 2017년 상반기 중 송광사 반환 예정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 문화재청(청장 나선화), 미국 포틀랜드박물관(관장 Brian J. Ferriso)은 Robert Mattielli(86세)씨가 본인이 포틀랜드박물관에 기탁한 「오불도」가 원 소장처인 송광사로 돌아가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오불도」는 「오십삼불도」 중의 하나이다. 「오십삼불도」는 『관약왕약상이보살경(觀藥王藥上二菩薩經)』을 근본경전으로 하여 조성한 불화로 송광사를 비롯한 일부 사찰에만 전하는 귀중한 불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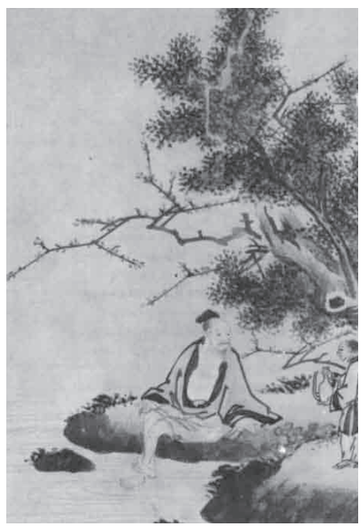
당초 송광사의 불조전에 소장된 「오십삼불도」는 모두 7폭으로 「십삼불도」(2폭), 「구불도」(2폭), 「칠불도」(1폭), 「오불도」(2폭)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오불도」 2폭 모두 도난 되어 현재 5폭만이 남아 있다. 도난 된 「오불도」 2폭은 1999년에 대한불교조계종이 발간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에 수록(104쪽)되어 있다.

미국 포틀랜드박물관에 기탁된 「오불도」는 당초 송광사 불조전의 왼쪽 출입문 벽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 1폭의 「오불도」는 오른쪽 출입문 벽에 위치해 있던 것이나, 현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

총지종보 인터넷 뉴스(www.chongjinews.com)

데스크 칼럼

탁족(濯足) 조상들의 지혜로운 피서법



▲ 고사탁족도

▲ 노승탁족도

올 여름은 무난히 더웠다. 전 세계가 불덩이다. 1873년 규격화 된 기상관측이 처음 시작된 후로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 됐다. 서울의 날씨만 해도 7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총 18일 동안 낮 최고 기온이 34도를 넘어 찜통 같은 날의 연속이었다.

지난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기사에는 지난 1880년부터 2015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변화를 보면 1970년대 후반부터 온도가 급상승 한다는 것이다. 2015년에는 시작점인 1880년 보다 무려 0.9도가 상승했다.

물론 숫자상으로는 그리 큰 변화는 없다. 그러나 지구라는 별 전체의 온도 상승으로 보면 무서운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다. 학자들은 이 현상을 두고 지구 온난화라 부른다. 주된 원인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 온실가스(Green house gas)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른바 온실효과가 발생하여 지구 표면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려 지구상 평균 해수면이 상승했다. 남태평양의 일부 섬나라는 물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온난화의 영향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강한 자외선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4대 강은 온통 녹색으로 물들었다. 동. 식물의 분포도 확연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아열대에서 자라는 물고기나 식물들이 이미 한반도 남쪽으로부터 서서히 북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증가로 배기가스의 배출이 늘어나 공기의 질은 더욱 나빠졌다. 당장의 변화를 눈으로는 감지하지 못하지만 지구 온난화는 서서히 우리 주위를 감싸오고 있다.

에어컨디셔너의 보급이 일반화 된 지금은 인위적으로 공기를 차게 만들어 한결 간편하게 온도와 습도를 조절한다. 그러나 선풍기도 없던 옛 조상들은 어떻게 더위를 피했을까?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피서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대표적인 피서법으로 흐르는 물에 발을 씻는 탁족(濯足), 시원한 폭포를 관람하는 관폭(觀瀑), 강에서 뱃놀이를 즐기는 선유(船遊), 고전을 읽으며 보내는 독서(讀書), 물고기를 잡아먹는 천렵(川獵) 등이 있다.

이들 중 관폭과 선유, 독서, 탁족은 선비들의 피서법이고, 천렵이나 탁족은 서민들의 피서법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옛 그림들을 찬찬히 들러보면 유독 눈에 뛰는 그림이 있다. 한가로이 달을 보며 맑은 시냇물에 발을 담구고 있는 사람이 그려진 그림, 바로 탁족도(濯足圖)다.

산간 계곡의 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쫓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탁족은 전통적인 선비들의 피서법이다. 선비들은 몸의 노출하는 것을 꺼렸으므로 발만 물에 담근 것이다. 그러나 발은 온도에 민감한 부분이고, 특히 발바닥은 온몸의 신경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발만 물에 담가도 온몸이 시원해진다. 또한 흐르는 물은 몸의 기(氣)가 흐르는 길을 자극해 주므로 건강에도 좋다. 음식이나 기구로 더위를 쫓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더위를 잊는 탁족은 지혜로운 선비들의 피서법이다.

탁족은 피서법일 뿐만 아니라 정신 수양의 한 방법이다. 선비들은 산간 계곡에서 탁족을 함으로써 마음을 깨끗하게 씻었다. 탁족이라는 용어는 본래 중국의 고전인 『초사(楚辭)』와 관련이 된다. 『초사』의 '어부편(漁夫篇)'을 보면, 늙은 어부가 부르는 노래에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발을 씻을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를 줄여서 '탁영탁족(濯纓濯足)'이라고 한다. 이 노래는 도가 행해지는 좋은 세상일 때는 조정에 나아가 뜻을 펼치고, 도가 행해지지 않는 난세일 때는 숨어산다는 의미다. 따라서 탁족은 단순히 발을 씻는 행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고사를 음미하며 마음의 이상향에 깃드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물의 맑음과 흐림이 그러하듯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스스로의 처신 방법과 인격 수양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부터 탁족은 선비와 화사들에게 좋은 소재가 됐다.

탁족을 소재로 한 그림에는 이경윤의 고사탁족도(高士濯足圖), 이정의 노옹탁족도(老翁濯足圖), 작가 미상의 고승탁족도(高僧濯足圖), 최북의 고사탁족도(高士濯足圖)가 있다. 모두가 간결한 그림들이다. 중국에서는 송(宋)나라 때 탁족을 소재로 한 그림이 등장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기 이후에 등장한 것을 고려하면 선비들의 탁족 풍속은 중국에서 유래한 듯하다.

서민들의 피서법인 산천유람(山川遊覽)에서 탁족을 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풍속이라고 여겨진다. 각박한 현대문명을 떠난 자연친화적이고 소박하고 건강한 피서법이다.

'탁족도'로 유명한 인물은 왕족출신의 선비화가인 낙파 이경윤(1545-1611)이다. 그의 그림으로 전하는 「고사탁족도(高士濯足圖)」(국립중앙박물관 소장)는 뜻이 높은 선비(高士)가 나무 그늘에 옷을 풀어헤치고 개울에 발을 담그고 있다. 언뜻 보기에도 우리의 선비는 아닌 것 같고 중국풍의 인물로 보인다. 옆에는 동자가 차 혹은 술을 대령하고 있다.

또한 여름철 수행에 지친 노승이 계곡에 발을 담그고 있는 모습을 그린 관아재 조영석(1686-1761)의 「노승탁족도(老僧濯足圖)」다. 숲속 계곡을 따라 흐르는 시냇가에서 한 스님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같은 포즈로 물에 발을 담그고 있다. 허벅지까지 바지를 올리고 다리를 씻고 있는 것 같다. 깊은 산속 수행자가 더위를 피하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느껴진다.

올해처럼 더위가 사상 초유의 기록을 갱신 할 때는 모두가 산과 바다로 떠나고 싶어 한다. 해수욕장과 워터파크에 몸을 담그고, 산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거나 야외에서 캠핑을 하며 지친 일상을 잠시나마 벗어버린다.

그러나 혹서의 기간도 한때라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붐비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이 여름 탁족도 바라보며 마음으로 나마 깊은 계곡에 발을 담그고, 밝은 달을 보며 월륜을 관하는 내 모습을 떠 올려 본다.

총지종보 편집장 김종열

부처님 이야기

토끼의 꾀에 넘어가 죽은 사자

예로부터 토끼는 꾀가 많기로 유명하여 별주부전에도 그의 지혜를 자랑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불본행집경(佛本行集經)에서는 그 토끼의 재주 때문에 만수천류(萬獸千類)가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박수갈채를 받는 이야기가 나온다.

어떤 숲 속에 사자 한 마리가 찾아왔다. 소담스런 금빛 형형하게 빛나는 눈, 힘이 넘치는 것 같은 굵은 발, 어느 것 하나 장부의 기상을 갖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그래 그는 넓은 산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한번 크게 소리쳤다.

「어흥」 천하는 바로 그의 것이였다. 누구 하나 대꾸하는 자가 없었다. 사자의 그 무시무시한 소리만 들어도 숲 속에 짐승들은 모두 제집으로 들어가 벌벌 떨고 있었다. 사자는 느릿느릿 숲 속을 돌아다니면서 숨어 있는 짐승을 차례로 찾아내어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버렸다. 이것은 여간 큰일이 아니었다.

이런 일이 언제까지나 계속된다면 이윽고 숲 속의 짐승들은 남김없이 죽어 없어질 것이 뻔하였다. 짐승들은 밤늦게 몰래 모여서 사후대책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궁리해도 좋은 계책이 생각나지 않았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사자에게 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누가 대표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되지 않아 궁리를 계속하고 있다가 마침내 고슴도치가 자청하고 나와 모두 함께 가되 용기 있는 고슴도치가 대표자로 앞에 나아가 말하기로 하였다.

「임금님」 사자의 집 앞에서 고슴도치가 소리쳤다. 「뭐냐?」 굴속에서 무시무시한 목소리가 울려 나오자 모두 놀라 움추리기 시작하였다. 「임금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무슨 부탁이냐?」

사자가 굴 앞에 육중한 모습을 나타내자 짐승들은 더욱 움추리며 벌벌 떨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고슴도치는 임금님 앞으로 바싹 다가가 말하였다.

「이대로 가다가는 숲 속의 짐승이 씨가 마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매일 한 마리씩 임금님께 자청하여 찾아오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다. 약속은 엄격히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한꺼번에 모든 짐승을 다 잡아먹으리라.」

그리하여, 이튿날부터서는 선출된 짐승들이 동료들의 융숭한 대접을 받고 눈물의 전송 속에 사자에게 갔다. 그런데 어느 날 토끼 한 마리가 사자에게 가게 되었다.

울면서 길을 떠난 토끼는 어떻게 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을까, 온갖 궁리를 다 하며 걸어갔다. 그런데 도중에 가 우물 옆을 지나가는데 문득 자기의 그림자가 그에 비치는 것이 아닌가.

그는 무릎을 탁치며, 「됐다. 이것이다.」 하고 부지런히 걸어갔다. 그러나 우물가에서 많은 생각을 하다 갔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늦었다. 화가 난 사자는 섰다 앉았다 안절부절하면서, 「이 놈들이 나를 속여」 하고 노기가 충천했다. 그 때 마침 토끼 가 찾아왔다.

「네 이놈, 왜 이리 늦었느냐?」

「예, 죄송합니다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예, 도중에 임금님과 똑같이 생긴 사자를 한 마리 보았습니다. 나를 잡아먹으려 하기 때문에 내가 임금님께 간다고 하였나니 화를 벌컥 내면서 <이 산중의 왕은 나인데 나 이외에 또 누가 있다는 말이냐! 그놈을 내가 혼 짝을 내어 주리라>하였습니다. 그래서 늦어 졌습니다.」

임금님은 온 몸을 벌벌 떨면서,

「뭐, 어떤 놈이 그런 소리를 해, 내 그놈을 작살을 내 주리라, 어서 길을 인도하라」 하였다. 그리하여 토끼는 발걸음도 가볍게 그를 인도하고 우물가에 도착하였다.

「바로 저 속에 들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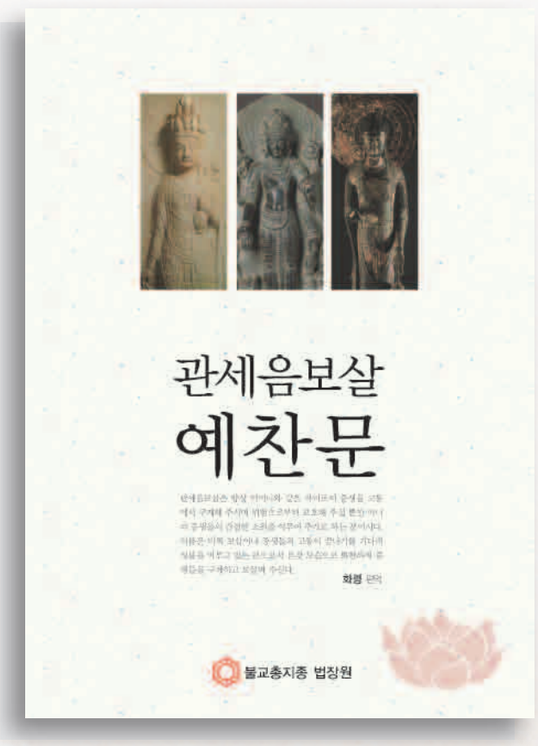
사자가 높이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과연 자기와 똑같은 사자 한 마리가 자기를 쳐다보았다.

「어흥」 하고 한번 크게 소리를 지르니 그도 따라서 똑같이, 「어흥」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하여 그는 화가 난 얼굴로 이러 뛰고 저리 뛰며 요동을 하니. 물속의 사자도 똑같이 소리치며 야단을 하였다.

화가 난 사자는 자기의 모습을 우러러 보다가 그만 물속으로 쑥 들어가 그와 싸우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그 육중한 몸이 깊은 못에 잠기어 죽으면서, 「토끼야 날 살려라, 토끼야 날 살려다오.」 마지막 소리를 남기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산짐승들은 모두 토끼를 에워싸고 둘러서서 춤을 추고 노래하였다.

(불본행집경)



이 책을 읽으면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저절로!!!

관세음보살 예찬문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온화하신 자비 광명 온누리 비추시네
무명 중생 괴로움 모두 살피사 빠짐없이 골고루 건져주시네"

- 관세음보살은 누구인가?
- 관음경
- 천수경
- 신묘장구대다라니해설
- 관세음보살 관련 각종 진언
- 옴마니반메훔의 의미와 수행법

화령 편역 | 불교총지종 법장원 발행
정가 15,000원 | 법보시가 8,000원 (10권 이상)

《관세음보살 예찬문》 법보시로 무량복덕 쌓으시기를...문의전화 02-552-1080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불교도의 역할

화령 정사 / 철학박사 중앙교육원장

이 글은 국제재가불교포럼(ILBF)의 명예회장인 총지종 화령 정사가 제8차 인도네시아 포럼에서 발표한 것을 요약한 것이다.

인간들이 지금껏 저질러 왔던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 지구 황폐화는 인간의 손으로 수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불교의 중심철학인 연기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此有故彼有, 此滅故彼滅)"는 가장 간단한 형태로 표현된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여 발생하고 소멸하며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만 존재하고 현상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기의 철학을 이해하는 불교도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도 연기법에 의하여 파악한다. 우리를 둘러싼 기세간이 원만하지 못하면 기세간에 머무르고 있는 중생들의 삶도 원만하지 못하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터전으로 하여 살고 있는 땅과 바다, 하늘이 오염되면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오염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연기의 진리를 설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미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을 일러 주셨던 것이다. 그래서 불교도들은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유정물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게 할 것을 배운다.

또한 생명 있는 것 뿐 아니라 모든 물건을 중생들을 위하여 절약하고 함부로 낭비하는 것을 경계한다. 자연은 우리의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와 더불어 공존해야할 대상이라는 것을 연기의 진리를 통하여 깨달아야 한다.

대부분의 불교도들은 서로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는 지구인들의 생활양태를 연기의 진리에 입각하여 잘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구의 자원은 무한정하며 오직 인간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불교도들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수정해 주어야 할 사회적 의무가 있다.

특히 불교지도자들은 지구상에서 지구를 황폐화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유일한 생물이 우리 인간임을 각성하도록 연기의 진리에 입각하여 사회를 계몽하고 특히 정책입안자들과 경제적 리더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할 것이다.

일반불자들도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상생과 공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연기의 진리를 잘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생활상에서 그러한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환경보호에 앞장설 수 있어야 한다.

환경보호는 연기법의 이해와 실천으로

인간들이 오늘날과 같은 문명을 이룩한 것은 인간의 탐욕이 그 원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인간들은 인간의 행복을 마음의 만족보다도 물질적인 만족에 더 초점을 맞추어 노력해왔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재화를 생산하여 인간의 탐욕을 채우려는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이제 인간들은 인간의 탐욕을 억제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재화를 생산한다고 해도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탐욕을 채워주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환경오염도 근원적인 원인은 인간의 과도한 욕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면 가장 먼저 다스려야 할 것은 탐욕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이다.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재화가 아무리 많아도 늘 부족함을 느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를 안다면 인간의 역사는 훨씬 달라졌을 것이며 비록 오늘날과 같은 과학의 발전과 산업의 융성은 보지 못했겠지만 인간 개개인의 행복도는 훨씬 더 높아졌을 것이다. 물론 그에 따른 환경오염의 피해도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

인류는 그동안 행복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서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바깥으로 향하여 물질적인 만족으로 행복을 느끼려고 해 왔다.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이러한 눈부신 산업발전과 과학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인간들은 점점 소외감을 느끼고 생활고는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빈부간의 격차는 국가 내에서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간에서도 그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국제적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빈부 격차와 자원 확보를 둘러싼 국제간 갈등은 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으며 전쟁수행에 따른 자원의 낭비와 자연의 훼손은 또 다른 환경 문제를 낳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탐욕의 충족을 위한 대립과 투쟁은 개인의 삶을 불행으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다스림에 의하여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지구의 모든 인간들이 탐욕을 내려놓고 소박한 삶을 지향하게 되면 소비도 줄어들 것이며 소비를 지탱하기 위한 자연의 훼손도 줄어들 것이다. 거기에 따라 병든 지구도 다시 제대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이며 자연재해를 통하여 보여준 노여움도 점차 수그러들 것이다.

한정된 자원을 두고 내가 그만큼 더 가지면 다른 사람의 몫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의 제어와 함께 자비심이 발휘되지 않으면 안된다. 욕심을 줄이고 자비심을 발휘하여 내가 쓸 것을 다른 누군가가 쓰게 하여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마음을 지닌다면 필요 이상의 자원낭비는 훨씬 줄어들 것이며 그만큼 환경보호가 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항상 소박한 삶을 살도록 하며 남에게 양보하고 모든 물자를 아껴 쓰는 습관을 기른다면 청정국토가 바로 이 자리에서 실현될 수 있다.

환경 오염은 인간의 탐욕에서

환경오염의 문제는 인간이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이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은 그저 스스로의 원리에 따라 반응할 따름이다. 인간들이 지금껏 저질러 왔던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 지구 황폐화는 인간의 손으로 수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의 희망대로라면 이 지구상에 많은 불자들이 생겨나서 연기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러한 진리를 생활상에 실천하여 스스로 욕심을 절제하고 낭비를 줄이며 자비심을 베풀어 모든 생명과 자원을 아끼는 태도를 지닌다면 더 할 나위 없는 행운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 불자들 스스로 자원을 아끼고 환경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는 생활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욕심을 절제하고 소박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그러한 태도로서 사회의 모범이 되고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 호의를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는 불제자로 변신할 때 환경보호와 함께 이 지구의 평화가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이다.

환경보호를 위한 불교도의 실천 방안

1. 음식을 절제하라.

과도한 음식의 섭취는 본인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의약품과 물자가 소비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의약품과 물자를 조달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며 공해를 유발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라.

비만한 사람이 감량을 하기 위하여 런닝 머쉰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전기가 소비되고 있으며 그러한 전기가 화력발전에 의한 것이라면 대기오염을 촉진하는 것이 된다.

원자력발전이라고 해도 발전소의 핵폐기물은 엄청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그릇된 식습관을 개선하고 음식물의 낭비를 줄여야 한다.

2. 육식을 삼가라.

육식을 하기 위하여 많은 가축이 사육된다. 가축 사육은 농경지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생산 감소를 가져오며 기아에 빠진 많은 사람들의 음식 섭취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된다. 더구나 가축 사육에 따른 폐기물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며 질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항생제의 독성은 고스란히 먹는 자의 입으로 들어간다.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고 항생제 등을 만드는 재료는 석유에서 나오기도 한다. 또한 가축이 내뿜는 메탄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다. 육류 대신 식물을 섭취하면 건강에도 좋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3. 사치와 낭비를 하지 말라

필요 이상의 큰 집에 살거나 큰 차를 타거나 많은 옷을 소유하는 것도 자원 낭비가 된다. 큰 집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모되는 에너지도 결국은 지구를 황폐화하는 길이다. 큰 차를 소유함으로써 소비되는 에너지는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자동차 경주나 오토바이 경주 등은 공해를 유발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가장 저열한 오락이다. 그리고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도 환경오염에 일조하는 것이다.

일 년에 한번 입을까 말까한 옷이나 구두, 핸드백을 쌓아두는 것도 자원 낭비이다. 이러한 제품의 대부분은 석유화학제품이다. 그런 것들을 버리게 되면 그 또한 환경을 오염시키는 재료가 된다. 검소한 생활태도는 환경 보호의 첫걸음이다.

일상생활에서 사치와 낭비만 절제하더라도 환경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4. 물건을 아껴 쓰고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라.

어떤 물건이든지 아껴야 한다. 아까워서가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껴야 하는 것이며 다른 중생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아껴야 한다.

일회용 그릇이나 용품은 가급적 쓰지 말라. 그러한 것들을 생산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석유가 소비되어야 하며 또 그러한 것들이 버려졌을 때 토양과 물이 오염된다는 것을 생각하라. 설혹 그러한 것들이 재활용된다고 하여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과 에너지의 소비는 막대하다.

쓰레기를 줄여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욕심을 줄이고 소박한 삶을 꾸려가면 쓰레기도 훨씬 줄어든다. 쓰레기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사람이야 말로 환경보호에 가장 앞장 서는 사람이다.

5. 종교행위를 빙자한 환경오염을 염두에 두라

불교는 마음을 다스려야 복을 받는다고 한다. 가짜 돈이나 망자를 위한 옷, 향, 초 등을 과도하게 태움으로써 복을 얻는다고 기대하지 말라. 그러한 것들을 태움으로써 나오는 연기는 건강을 해치고 주위의 생물도 해치게 되며 대기를 오염시킨다. 나아가서는 수질도 오염시킨다는 것을 알라.

6. 불교의 교리에 기초하여 환경보호 운동에 앞장선다

불교도들은 이 우주가 연기의 법칙에 의하여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불교도들은 이러한 연기법에 기반을 두고 환경보호운동을 펼쳐야 한다. 불교의 자비와 지혜로써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조화로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계몽하고 환경보호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불교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불교의 바른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환경운동의 일환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포교활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환경보호 운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불자들의 의무이다.

나를 돌아보는 수행인의 길잡이!
불교수행의 길에 처음으로 들어선 불자들의 필독서

초발심자경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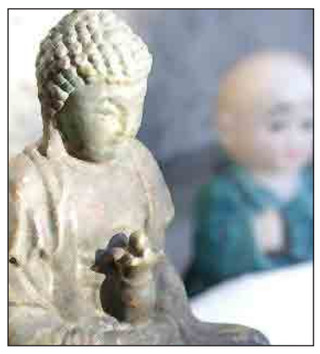
·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 ·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 자경문(自警文)

✓쉬운 번역!
✓간결한 표현!
✓읽기 쉬운 원문!

"《초발심자경문》은 불교수행의 길에 들어선 초심자뿐만 아니라 입문한 지 오래된 전문수행자도 자신을 살피기 위하여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머릿말 중에서-

화령 번역 / 불교총지종 법장원 발행
정가12,000원 / 169쪽

법보시 받습니다. 법보시가 (7,000원 / 10권 이상)
문의전화 02-508-8933



박물관 순례

국립중앙박물관, 발굴 40주년 기념 특별전 '신안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

▲ 전시가 가능한 모든 신안 유물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 신안 해저선의 복원 모형

▲ 발굴 당시 해저에서 발견된 상태 복원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은 신안해저선 발굴 40주년을 맞아 특별전 '신안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을 개최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군사관학교박물관과 중국 저장성박물관, 텐이거박물관, 닝보박물관, 항저우시문물고고연구소, 인저우구문물관리위원회와 일본 츠시시박물관, 도쿄국립박물관,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등 동양 3국의 유물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신안해저선에 대한 발굴은 1975년 8월 전남 신안 증도 앞바다에서 한 어부의 그물에 걸려 올라온 도자기 6점에서 비롯되었다.

어부는 초등학교 교사인 동생에게 도자기들을 보여주었고, 동생은 이듬해인 1976년 '청자꽃병'한 점을 신안군청에 신고하였다. 그 도자기는 놀랍게도 원元(1271-1368) 나라 때에 존재했던 용천요(龍泉窯)라는 가마에서 만든 청자였다. 이어서 나머지 5점도 신고가 되었다.

650여 년이 지났지만 잘 보존된 원대 도자기의 존재가 알려지며 국내외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안타깝게도 신안 앞바다에서는 몰래 도자기를 건져 올리는 불법적 행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당시 문화재관리국(지금의 문화재청)은 1976년 10월 27일부터 본격적인 발굴을 시작했다. 그 결과 신안해저선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며, 1984년까지 9년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배와 함께 실려있었던 각종 물품 2만 4천여 점과 동전 28톤 상당의 엄청난 양의 문화재들을 발굴했다. 이것들이 바로 특별전에 전시하는 '신안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이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신안해저선에서 발굴된 문화재들을 전시해왔지만, 종류별로 대표성이 있는 것들만을 골라서 공개한 명품 위주의 전시였다.

2만 4천여 점에 이르는 발굴품 가운데 지금까지공개된 것은 전체의 5% 정도인 1천여 점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특별전에서는 신안해저선의 전모를 생생히 실감할 수 있도록, 발굴된 2만 4천여 점의 문화재 가운데 현시점에서 전시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모아 최초로 공개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전 역사상 가장 많은 수량이 전시됐다.

신안해저선의 목적지는 원래 일본 하카다(博多), 지금의 후쿠오카다. 이 배에 실린 금속기와 도자기는 크게 식생활 용기, 의례 용기, 장식 용기로 구분된다. 수량이 가장 많은 것은 대접, 접시, 잔, 주전자, 항아리 등 식생활 용기들이다.

그리고 의례와 장식에 사용된 기종들도 적지 않다. 향로, 향병, 향합 등 향과 관련된 용기나 꽃병, 수반, 화분 등 꽃을 키우거나 장식에 사용했던 화기(花器)들과 찻잔, 잔받침, 주전자 등 다기(茶器)류도 다량 발굴됐다.

일본 가마쿠라시대(1192-1333)에는 하카다 당방(唐房)에서 강수(綱首)라고 불린 중국 해상(海商)이 들어와 다양한 상품을 판매했다. 송(宋.960-1279) 문화에 메혹되었던 일본 상류층은 이러한 중국의 물건들을 사들이는데 열을 올렸다.

신안 해저선에 실린 교역품들은 당시 일본에서 유행했던 중국 문화와 관련이 있다. 그 중에서도 차 마시기와 향 피우기, 꽃 완상(玩賞)에 대한 관신을 보여준다. 차, 향, 꽃을 즐기는 문화는 14세기 중국, 일본뿐 아니라 고려에서도 나타난다. 당시 동아시아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던 취향과 심미관을 찾아볼 수 있다.

특별전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신안해저선의 문화기호 읽기'에서는 복고풍의 그릇들과 차(茶), 향(香), 꽃꽂이 등과 관련된 완상품들을 소개한다. 이로써 당시 동아시아에서 유행한 중국적 취향과 그에 따른 일본 상류층이 선호했던 문화생활을 살필 수 있고, 나아가 고려에 있었던 비슷한 문화적 취향도 알 수 있다.

제2부 '14세기 최대의 무역선'에서는 신안해저선이 닻을 올렸던 중국 저장성(浙江省)의 닝보(寧波)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역활동을 소개한다. 신안해저선의 선원과 승객들의 선상 생활도 살펴본다.

제3부 '보물창고가 열리다'는 으뜸 전시공간으로서 신안해저선에 실렸던 '화물'들을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도록 도자기, 동전, 자단목, 금속품 및 향신료 등을 '큰 덩어리'로 소개한다. 일부는 당시의 발굴 상황 등을 재현해 전시한다.

이로써 신안해저선의 실체와 함께 중세 동아시아의 문화교류 양상을 보여주고자 한다. 신안해저선의 발굴은 우리나라 수중고고학의 효시가 되었으며, 그 경험과 성과는 이후 수많은 수중문화재 조사의 밑바탕이 되었다.

발굴된 문화재들은 14세기 동아시아의 경제적·문화적 교류 등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바닷물 속에 잠겨 있다가 타임캡슐처럼 650여 년 만에 나타난 신안해저선은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특별전 연계 학술행사로서 2016. 9. 2.(금) 국제학술심포지엄을 마련했다.

국립중앙박물관=김초랑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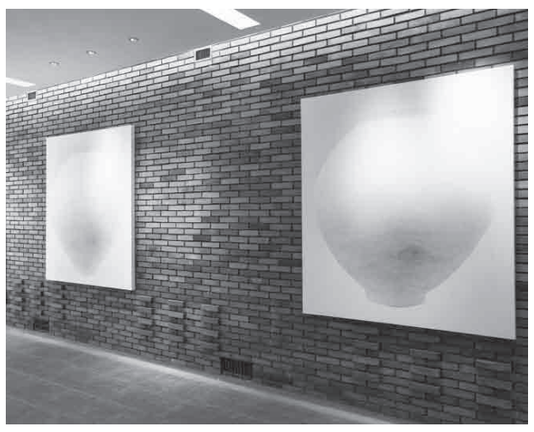
▲ 일본 상류층의 장식품으로 쓰인 유물들

▲ 일본에서 물건을 받을 곳을 기록한 목간(동복사 등 사찰의 이름 등)

서하보살의 불교문화산책

가을 맞이 전시 나들이 떠나자

폭염의 뒤끝, 평상시 기온보다 높은 온도는 10월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전망이다. 슬슬 가라앉는 열기 속에 맞이할 가을. 더위에 지친 마음을 가득 채울 전시가 찾아온다. 입체가 평면이 되고, 정적인 이미지가 동적인 움직임을 만날 때를 담아낸 전시 속에서 평범했던 것이 달라지는 이질적인 변화에 매료된다.
가을 맞이 전시 나들이에 나설 시간. 길었던 여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전시의 매력에 퐁당 빠져보자.



▲ 최영욱 -달항아리

어리숙하면서 순진한 초월의 흰빛 화폭에 옮긴 달항아리에 빠지다

최영욱 '인연 KARMA'
8월22일~9월30일
갤러리 비선재 02-793-5445

눈처럼 하얗고 둥그런 아름다움, 달항아리. 그 모습이 보름달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조선시대를 풍미한 백자의 이름이다.

백자 달항아리는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정서가 가장 성공적으로 표현된 예술품의 하나. 미술사학자 고(故) 최순우 선생은 "흰빛의 세계와 형언하기 힘든 부정형의 원이 그려 주는 무심한 아름다움을 모르고서 한국 미의 본바탕을 체득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아주 일그러지지도 않았으며 더구나 둥그런 원을 그린 것도 아닌 이 어리숙하면서 순진한 아름다움에 정이 간다"라고 백자 달항아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찬미하였다. "넉넉한 맏며느리 같다"는 찬사 또한 덧붙였다. 미술사학자 겸 고고학자였던 김원용 선생은 "이론을 초월한 백의(白衣)의 미"라고 노래했다.

달항아리는 규모가 커서 한 번에 물레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아래의 몸통을 따로 만들어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반듯하게 비례가 맞은 것도 있지만, 만든 사람의 손맛에 따라 둥근 형태가 각각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달항아리는 완벽한 조형미 보다는 부정형의 둥근 멋이 특징이다.

이런 달항아리를 화폭에 담은 작가가 있다. 3차원 입체 달항아리는 최영욱 작가에 의해 2차원 평면 캔버스로 옮겨진다. 인간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도자기라는 이미지를 매개체로 삼아 작가는 소통에 나선다.

최 작가는 자신의 작가노트에 이렇게 남겼다. '나는 도자기라는 이미지를 소통의 매개체로 선택했다. 그 안에 내 삶의 이야기를 풀었고, 동시에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들을 담았다.

도자기는 우리 인생사와 많이 닮았다. 도자기의 선은 인생의 여러 길 같다. 갈라지면서 이어지고, 비슷한 듯하며 다르고, 다른듯하면서 하나로 아우러진다'고. 하얗게만 보이는 달항아리의 몸체에는 사실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선들이 교차한다.

도자기 표면에 바른 유약이 고온의 가마 속에서 구워질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가느다란 균열인 빙열의 질감을 작가는 화폭에 그대로 담아낸다.

이 선들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 또는 인간 삶의 편린과 추억을 불러일으키고자 의도한 것이다. 균열된 선 하나하나는 삶이자 인연이다.

빙열을 독창적인 장식처럼 사용한 고대 도공들처럼 달항아리 빙열 속에서 삶의 인연, 기억의 실타래를 풀어낸다.

하나가 갈라지고 또 갈라져 같은 듯 다른 도자기의 빙열. 그것을 인간 앞에 놓인 인생의 여러 길로 작가는 해석한다.

작가는 커다란 캔버스를 하얗게 칠하고 달항아리의 형태를 잡은 후에 동양 안료와 아크릴 물감을 섞어 색을 입힌다. 빙열은 얇은 붓으로 세밀하게 그려낸다.

채색한 것을 말린 다음 사포로 문질러 실제 달항아리와 유사한 질감을 표현하는 것. 이러한 작업을 수십 번 반복해야 화폭에 달항아리의 형태가 드러난다. 이렇듯 세밀하게 표현된 빙열은 화폭에 담긴 달항아리를 가득 채운다.

그 갈래를 알 수 없는 뒤엉킴이 '카르마'라는 주제를 드러내는 것.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얽히고설킨 인연이 되고, 부처님이 설한 연기의 요체가 담긴다.

▲ 정수연(BUDDHAS)

캔버스에 옮겨 앉은 달항아리의 매력에 푹 빠져있다 보면 삶에 대한 의문과 마주하게 된다.

내 삶을 이어가는 인연의 실마리를 찾아 당장 사색 여행을 떠나자.

핑크 붓다, 그 생기 있는 깨달음

BUDDHAS, 9월 1~15일
불일미술관 1 · 2관, 02-733-5322

프로젝트 아티스트 그룹 '핑크붓다'가 돌아온다. '일상에서 누구나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BUDDHAS 전시를 들고, 9월 1~15일 서울 불일미술관에서 열리는 BUDDHAS 전시는 각자가 생각하는 붓다를 자신만의 매체(사운드, 영상, 설치, 회화 등)를 활용해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작가의 경험은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전시 공간에 녹아든다. 현대미술에서 불교 예술은 현대성이 부족한 소재로 폄하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반기다. 동·서양의 작업 방식을 융합한 작품을 통해 작가들의 자전적 경험을 접하게 될 좋은 기회. 3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는 이번 전시의 장르별 대표작을 살펴보자.

핑크붓다 대표 조수연(동국대 불교미술 박사) 작가는 전시 제목과 같은 'BUDDHAS'를 출품했다. 랑데뷰지에 프린트한 작품은 군상을 담은 이미지. 작가는 여기에 '나는 매일 나는 매일매일 많은 붓다들 속에서 살아간다. 그들이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달았다.

▲ 허효진(Meditative roar of crust of the planet)

허효진 작가는 'Meditative roar of crust of the planet'이라는 유화 작품을 선보인다.

'BORDERLAND, 명상(冥想)적 굉음(轟音)이 있는 곳'이라는 설명을 단 이 작품에 작가는 "막힘이 없고, 멈춤도, 단절도 없는, 그러나 하나가 아닌 이 고요의 곳에서 나는 고이지 않는다.

나의 화면에는 온도가 있다. 유속이 있다. 동결된 혹은 포착된 순간의 상황으로 설명되기를 거부하는 것은 나의 붓질이 가능한 온도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유동의 공간이 격렬히 일어나는 붓질의 순간에서 나를 본다.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의도를 작품에 담아냈다.

정윤영 작가는 면 바탕에 유화 수채 과슈 한지 꼴라쥬 '식물'로 관객과 만난다. 작가는 '식물'을 '식물이 지닌 자연스러움은 때때로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에 개입하여 관계 맺고 감각하는 사이, 그것은 내 삶의 편린으로 다시 살아난다. 어떤 묵직한 의미부여 보다는 식물이 제공하는 잔잔한 울림이 곧 나라는 '존재'의 문제로 연결됨을 알아차린다'고 표현한다.

미디어 아트 '환還'을 선보인 최경준 작가는 '참회하고 부처의 참 생명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직관적으로 표현했다'고 작품을 설명한다.

'생로병사가 인간이 극복해야할 문제로 집중되는 현대, 사람들은 이런 시대에서 굳이 부처가 되려는 삶을 살려할까?' 이 화두에 대한 답을 전경희 작가는

▲ 정윤영(식물)

장지에 채색한 작품 '무제'로 찾는다.

소리에 집중한 정금률 작가는 사운드 가변설치 작품 'Watch the sound of the world'에서 소리로 불성을 일깨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낸다.

핑크붓다는 2013년 초 여러 아티스트들이 의기투합 하여 만든 프로젝트 아티스트 그룹이다.

패션 디자인부터 디자인 경영, 회화, 불교미술, 사운드 등 구성원의 전공 분야도 각양각색. '어떤 의견도 쓸모없는 것은 없다'라는 모토 아래, 서로 어떤 것이든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며 각각의 아이디어를 덧대어주고 보완하며 지금까지 꾸준히 다양한 프로젝트형 전시를 기획해, 새로운 불교예술의 장을 열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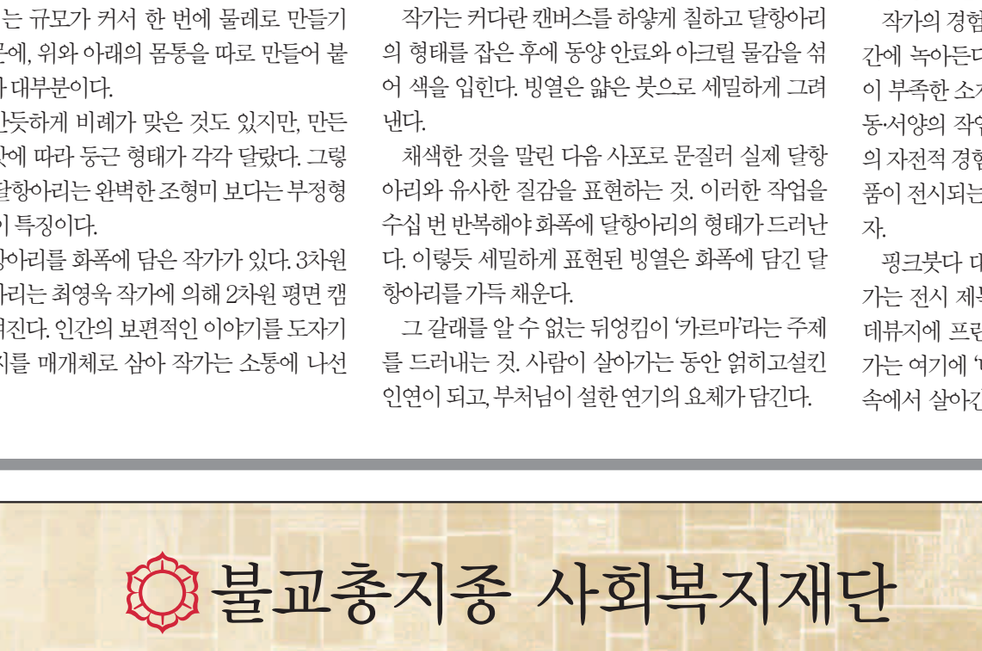
핑크붓다는 거창한 사명이나 이념을 갖고 있지는 않다. 무슨 지루한 종교예술 집단이나 그저 그런 뻔한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의 모임도 아니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 초기 불교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묻어나는 전시를 기획하는 것이 핑크붓다의 갈 길이다.

"불교 시각 예술가를 지향한다는 것은 불교의 정신을 통해 연기적으로 확장된 여러 경향들을 자각하고 끌어안는 것을 말한다"며 "그로인해 끊임없이 경계를 넘나드는 것, 이것이 핑크붓다가 가야할 제 3의 길"이라고 핑크붓다 구성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종교라는 이유만으로 무겁게 자리한 불교예술을 보다 친숙하게 대중에게 알려 불교의 본질적인 이해를 돕고자하는 핑크붓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궁금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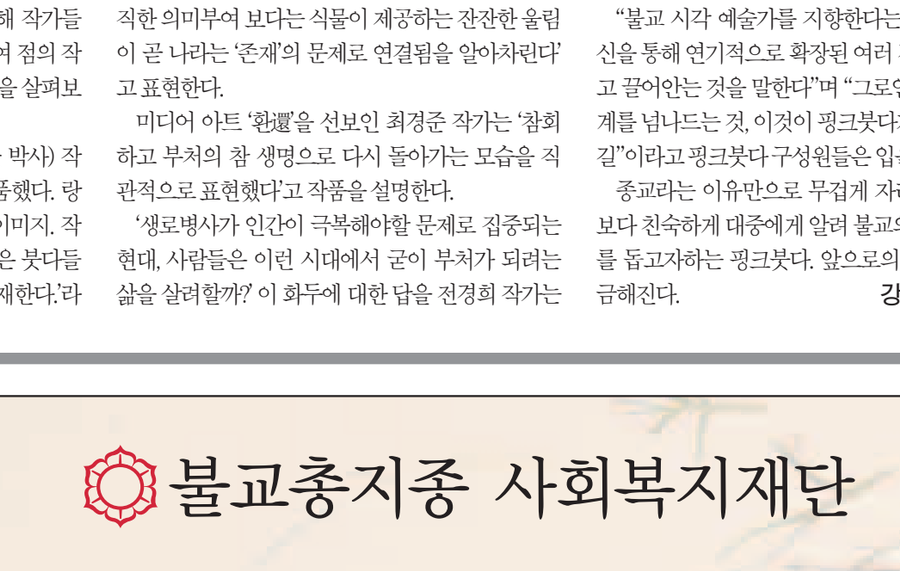
강지연 구성작가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서초 구립
포레스타 7단지 어린이집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로 11길 7-12 708동 1층 / ☎ 070-7204-2030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바라밀 공부방
청소년들의 활기찬 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051)552-0705

밀교연재 깨달음의 세계 · 불보살의 도량,
법경정사의 만다라 이야기 (31)

금강계만다라의 항삼세회(降三世會)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법천사 주교)

▲ 그림1) 금강계만다라의 항삼세회 (흰색 네모)

▲ 그림2) 항삼세회의 구조

▲ 그림3) 항삼세명왕의 존상

항삼세회(降三世羯磨會)는 그림1)과 같이 금강계 구회만다라(九會曼荼羅) 중에서 오른쪽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 호에서 살펴 보았던 이취회(理趣會一)의 아래쪽에 해당한다. 항삼세회는 그림2)에서 보듯이 성신회나 기타 회(會)와 마찬가지로 37존 형식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취회(理趣會)와 그 이전의 만다라(曼荼羅)가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일체중생을 제도하고 있다면, 이번 호에서 살펴 볼 항삼세만다라에서는 '분노(忿怒)'로써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이라 할 수 있다.

제존(諸尊)이 분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는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며, 그 방편으로써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분노는 자비를 바탕으로 한 분노이며, 중생들의 하급적(下級的)인 분노와는 차원이 다르다. 즉 분노의 내면에는 따뜻한 자비심이 담겨 있고, 분노의 활동은 어디까지나 중생의 번뇌를 깨뜨리는 데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항삼세(降三世)라는 말은 삼세(三世)를 항복시킨다는 뜻으로, 자비와 지혜를 일으켜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먼저 번뇌를 없애야 하는데, 이를 항삼세(降三世)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항삼세만다라(降三世曼荼羅)는 번뇌의 주체인 중생이 미혹과 번뇌를 떨쳐 버리고 법신 대일여래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항삼세의 삼세(三世)는 과거·현재·미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탐·진·치(貪瞋痴) 삼독심(三毒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를 없애는 것을 항삼세(降三世)라 하고 있다. 즉 과거·현재·미래의 번뇌 뿐만 아니라 탐·진·치(貪瞋痴) 삼독심(三毒心)을 없애는 것을 항삼세라 한다.

삼독심을 없앰으로써 번뇌망상과 고(苦)가 여의게 되고, 이로써 자비와 지혜를 얻어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전식득지(轉識得智)의 의궤화(儀軌化), 도상화(圖像化)한 것이 항삼세만다라이다.

항삼세라는 명칭은 금강살타가 분노하는 항삼세명왕의 형상으로 대치되어 등장하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기존의 만다라에서는 금강살타가 등장하지만 항삼세만다라는 항삼세명왕이 대치되어 등장한다는 점이 이 만다라의 특징이다.

즉 비로자나불의 제1보살인 금강살타가 평범한 방법과 수단으로는 포악한 중생을 교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서운 분노존(忿怒尊)의 항삼세명왕으로 대치되어 중생을 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분노존의 항삼세명왕은 그림3)과 같이 팔짱을 끼고 있다. 팔짱을 교차한 모습은 분노형(忿怒形)의 기본적인 형상이다.

항삼세만다라(降三世曼荼羅)라는 명칭이 붙게 된 또다른 이유는 『秘藏記』의 명칭을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 『금강정경』에는 이 만다라를 삼계최승대만다라(三界最勝大曼荼羅)라 하였지만, 『秘藏記』에서는 이를 항삼세만다라(降三世曼荼羅)라 하였는데, 이 명칭에 따라 현도만다라(現圖曼荼羅)에서는 항삼세만다라(降三世曼荼羅)라 이름을 붙였다.

『금강정경』에서 삼계최승대만다라(三界最勝大曼荼羅)는 삼계(三界)에서 가장 뛰어난 대만다라(大曼荼羅)라는 뜻이며, 대만다라는 비로자나불을 위시하여 일체제존(一切諸尊)이 등장하므로, 대(大)자를 붙여 대만다라(大曼荼羅)라 한 것이다.

또한 불보살 등 제존(諸尊)을 불상(佛像)과 같이 형상(形像)으로 나타내었기 때문에 대만다라(大曼荼羅)라고도 한다.

삼계(三界)는 흔히 욕계·색계·무색계를 말하는데, 이 삼계(三界)의 주재자(主宰者)인 대자재천(大自在天)을 항복시키고 있으므로 항삼세(降三世)라고 하고, 또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삼세(三世)와 마찬가지로 탐·진·치 삼독심을 없앤다는 의미로서 항삼세(降三世)라고도 한다. 삼세(三世)와 삼계(三界)는 탐진치의 삼독심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같은 말로 쓰이고 있다.

항삼세명왕이 항복시키고자 하는 대상은 삼계(三界)의 주재자인 대자재천(大自在天)과 그의 비(妃)인 오마(烏摩)이다. 항복시키기 위해서 항삼세명왕은 손발로 이들을 짓밟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 대자재천(大自在天)은 두 손으로, 오마(烏摩)는 오른발로 짓밟고 있다.

『금강정경』에 따르면, 대자재천(大自在天)을 위시한 여러 신들이 모두 포악하여 좀처럼 불법(佛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금강살타가 항삼세명왕의 분노하는 모습으로 신들을 상대하였는데, 그 가운데 특히 대자재천은 스스로 삼계(三界)의 주재신(主宰神)이라 여기며 항삼세명왕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항삼세명왕은 분노상(忿怒相)을 하고 '훔(吽)'이라는 조복(調伏)의 진언을 외웠는데 다른 신들은 땅에 쓰러지며 항삼세명왕에게 조복되었지만, 대자재천은 고통 속에 빠져 있기만 하고 조복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대자재천은 비로자나불에게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비로자나불은 진정으로 대자재천을 구하기 위해서는 분노존에 의지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항삼세명왕에게 대자재천의 구원을 맡겼다. 그래서 항삼세명왕은 더욱 분노의 형상을 하고서 진언을 외웠는데, 그때 대자재천과 그의 비(妃) 오마(烏摩)가 땅에 쓰러지게 되었고, 이에 항삼세명왕이 이들을 짓밟고 있었다고 한다. 이것을 본 비로자나불께서 대자비(大慈悲)의 진언을 외우자 대자재천은 그제서야 불도(佛道)에 들게 되었고 해탈의 안락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금강살타가 분노형(忿怒形)의 항삼세명왕으로 대치되는 내용은 『금강정경』에 나오는데, 비로자나불께서 일체여래(一切如來)의 대분노금강삼매(大忿怒金剛三昧)에 들어 슌바와 니슌바 형제의 진언을 외우자 금강살타와 일체여래가 모두 분노(忿怒)의 형상(形相)으로 나투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항삼세만다라의 37존은 모두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슌바와 니슌바는 원래 인도의 설화에 나오는 인물로서 대자재천의 왕비에게 살해되었는데, 밀교에서는 이를 수용하면서 반대로 역전(逆轉)시켜 등장시키고 있다. 즉 두 형제의 진언을 외움으로써 대자재천과 그의 비(妃)를 조복시키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바, 이들의 관계를 뒤집어 놓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살해된 두 형제를 『금강정경』에 다시 증장시킴으로써 당시 지배적이었던 힌두교에 대한 불교의 심리를 역으로 분출시킨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대승후기와 초기밀교에서 힌두교의 신들을 채용하면서 힌두교에서 상대적으로 수세에 놓여 있던 신들을 오히려 반대의 입장에 배치해놓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분히 밀교의 의도적인 구상으로 보고 있다.

어쨌거나 대자재천을 최종적으로 완전히 조복시킨 것은 비로자나불이지만, 그렇다고해서 항삼세명왕의 노력과 역할은 무시할 수 없다. 버릇없는 무명중생을 비로자나불께서 차마 후려칠 수가 없어서 다른 분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을 뿐이다.

중생제도라는 대의(大義)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설사 원수나 포악한 악인(惡人)이라 할지라도 어찌 비로자나불께서 이를 내팽개칠 수 있겠는가. 오히려 대자비(大慈悲)로써 거두어 주시는 분이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이시다.

그러한 비로자나불께서는 때에 따라 아축불로 대신 나투시기도 하고, 또 아축불을 대신해서 금강살타로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금강살타 대신으로 항삼세명왕이 되어 나서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일체중생을 상대하여 몸으로 직접 부딪치고 있는 분은 역시 항삼세명왕이다.

이 항삼세명왕을 중생의 분별된 눈으로 본다면, 무섭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궂은 일을 하며 악역(惡役)을 자처하고 있는 분이므로 한없이 고마운 분이라 여겨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는 명왕을 주존(主尊)으로 삼아 숭배하는 경우가 이주 많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과연 항삼세명왕과 같은 분이 몇이나 될까? 분노와 꾸지람 속에도 한없이 따뜻하고 자비로운 모습을 하고 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격이 고매하여 화를 내어도 전혀 화를 내는 것이 아니어서 반발심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존경심이 절로 나오게 하는 그런 분이 많았으면 좋겠다.

<다음호에서는 마지막으로 항삼세삼매야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진각종, 제28차 wfb 세계불교도우의회 서울총회 9월 26일~30일 개최

진각종(통리원장 회정 정사 사진)이 주최하는 제28차 wfb 세계불교도우의회 서울총회가 9월 26일~30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주제로 개최된다.

9월 27일 총인원에서 열릴 대회의 하이라이트가 될 개막행사는 1부 진각종 의식 2부 주요인사 스피치인사 3부 개막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미래를 향한 5가지 진각의 서원과 메시지'를 주제로 열리는 개막공연은 전통국악과 조화를 이뤄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만큼 포퍼먼스 위주로 공연이 펼쳐진다.

통리원장 회정정사는 "부처님의 법을 일상생활속에서 실천하고 삶을 응용하고, 부처님처럼 살자는 메세지를 줄려고 한다"며 "1부 의식중에 있는 법문은 세계평화와 인류문명의 발전이 주된 내용이다. 불교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공생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외인사 50개국 400여명과 국내인사 700여명이 참가하는 제 28차 대회는 26일 오전 대표단 입국에 이어 오후 wfb 집행부 전체회의, 27일 오전 대표자 회의 오후5시 개회식 공식환영만찬이 열리며, 28일 오전에는 상임위회의 분과회의 오후 전체회의 불교복지 봉사포럼, 29일 오전 학술포럼, 서울총회 폐회식및 선언문 채택 오후 판문점 도라산 전망대등 문화답사가 진행된다. 30일에는 대표단이 출국하는 일정이다.

한편 wfb 세계불교도우의회는 세계 50개국 250개 불교단체로 구성된 지구촌 최대의 불교협의체이다. 1950년 스리랑카에서 창립했으며, 2년에 한번씩 열린다.

종단협, 제19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10월 11일부터 중국 설두사서 개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스님·이하 종단협)가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절강성 설두사에서 '천년을 이어온 법맥을 이어가자'를 주제로 제19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11일 3국 교류위원회의, 12일 세계평화기원법회와 국제학술강연회, 13일 3국 다도시연회 및 사찰순례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종단협은 이와함께 11월 9일부터 16일까지 7박 8일의 일정으로 중국 충칭시 및 사천성에서 쌍계당, 대족석굴, 아미산, 낙산대불 등 성지순례를 비롯해 중국의 불교문화 수행방법을 배워보는제10회 한국불교대표단 중국불교수행체험을 개최한다. 또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중국 섬서성 서안에서 '조사대덕의 위업을 널리 알리고 함께 수승한 인연을 이어가자'를 주제로 열리는 '중국 대승불교종찰문화 국제학술세미나'에도 참가한다. 세미나는 △대승불교종찰과 문화적 홍양 △대승불교종찰과 중국의 실천 △대승불교종찰과 국제교류 등의 분과 의제를 통해 토론과 발표를 이어간다.

대불련 '제 7회 영 부디스트캠프' 개최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주제로 미래 위한 소중한 시간 가져

한국불교의 미래를 짊어지고 이끌어갈 전국의 대학생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심을 증장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태우)는 8월 4일부터 3박 4일동안 한국문화연수원 및 마곡사 일대에서 전국의 대학생 불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Young Buddhist Camp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나 is 뭔들'로 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신조어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취업 준비와 스펙, 학업, 아르바이트로 점철된 일상에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잃어버린 대학생들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해주기 위함이다.

법우들에게 계산적이지 않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냄으로써, 대불련은 이번 여름 캠프에서 법우들이 '내가 어떻든 상관없다', '나는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고자 했다.

법우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인 '19금 붓다'(우리들의 즉문즉설)에서는 포스트잇에 자신의 고민을 적고 익명으로 판넬에 붙이면 법우들이 하나씩 읽고 그 고민에 대해 즉설을 해주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3박 4일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캠프의 마지막 밤에는 법우들이 미리 준비한 공연을 마음껏 보여주며, 평소 웅크리고 있었던 법우들까지도 이 시간만큼은 '나 is 뭔들'했다. 특히 이번 캠프에서는 <청년출가학교>에서 지도법사를 맡으신 '마음간호사' 원영스님의 '언제 어디서나 주인되는 청춘'을 주제로 한 법문 또한 큰 호응을 얻었다.

원영스님은 마음이 복잡한 청춘들에게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뭐든 도전하라"고 말해 법우들 마음에 은은한 감동을 주었다.

이화여대에 재학 중인 정수영 법우는 "일방적인 법문보다 대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법문을 해주셨고 마치 법문을 하면서 스님과 대화하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다"라고 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스님, 종정 혜초스님 예방

종정 혜초스님 "종단화합위해 노력하자"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스님이 8월 19일 태고총림 방장이며, 태고종 종정인 혜초스님을 예방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스님이 문안인사를 드리자 종정 혜초스님은 "지난 문제들은 다 털어버리고 종단화합을 위해 노력하자"며 "그동안 고생많았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잘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예방에는 총무원 부원장이며 선암사 주지인 호명스님과 부원장 백운스님이 배석했다.

조계종 7대 포교원 포교종책 기조 발표

"신행혁신으로 전법의 새 지평을 열 것"

조계종 포교원은 18일 오전 10시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행혁신 운동 전개 등 다섯 가지 종책 기조를 발표했다.

포교원이 발표한 포교정책에는 신행혁신 운동과 새 불자상 확립, 플랫폼 방식의 포교자원과 콘텐츠 발굴, 신도교육 내실화와 교재 개편, 포교·신도단체 자립·자율성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전법 대안 마련, 도심 및 농어촌 지역 사찰 공동체 모델 개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종책의 핵심은 신행 혁신운동으로 불교의 기복신앙을 극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웃과 사회에 퍼뜨리겠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해 포교원은 신행혁신 운동 로드맵을 마련하고, 불자상 및 신행지침을 정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행문화 확산을 위해 수행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사회적 실천운동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종단 차원의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불교계에서 개발된 다양한 콘텐츠를 집약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불교종합 콘텐츠 몰을 지원하고 육성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뉴 미디어 포교를 위해 포교자원 발굴과 활용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 후년까지 포교자원과 포교환경을 지역별로 파악해 포교종책 실현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포교지도도 만들기로 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로써 연도별 지역 포교지형 변화에 따른 포교종책 방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종교를 위한 종교가 아닌 대중을 위한 종교가 되기 위해 사찰 및 포교신도단체들과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포교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홍스님은 "앞으로 10년, 20년의 미래 불교 방향과 자라나는 새 시대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차분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리산서 대불련발전과 평화통일, 청년붓다 결의대회

대불련총동문회 전국동문대회 600여명 참석... 화엄사, 블루썬리조트서 개최

"저희는 불교발전과 대불련및 대불련총동문회의 발전,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언제나 기백을 잃지 않는 청년붓다가 되겠습니다."

대불련총동문회(회장 백효흠) 2016년 제14회 전국 동문대회가 '열어온 50년·열어갈 50년, 대불련 지리산을 품다' 주제로 8월 13일(토)~8월 14일(일) 지리산 블루썬리조트, 화엄사, 지리산 일원에서 전남지부(지부장 최정훈) 주최로 동문인 박종훈 경남교육감등 6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특히 이번 제14회 전국 동문대회에서는 지리산 노고단 고개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불교발전과 대불련 및 대불련총동문회의 발전, 조국의 평화통일을 염원했으며, 박태동 전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종주팀은 33km를 걸어 천왕봉 정상에 발원문을 올렸다.

대불련 동문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열어갈 50년'의 비전을 공유하고 문화행사와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소통하고 단합하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이번 대회 입재식에서 백효흠 대불련총동문회장은 "우리 스스로가 젊은 불자육성과 지역포교에 앞장서야 한다"며 "부정부패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 남북간 대치속에 긴장된 동북아 정세등 혼돈과 불안이 엉켜있는 이러한 상황속에 있는 우리사회에 비전을 제시할 때 주위의 공감과 후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경 대정사 지음/ 밀교연구소장/ 법천사 주교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발행/ 정가 10,000원 / 114쪽
* 구입문의 : (02) 552-1080~3

초심자들에게는 '수행입문서'로,
모든 종도(宗徒)들에게는 '수행지침서'로 삼을 수 있는 총지종의 수행 총서(叢書)!

입문자를 위한 수행 안내서
육자의궤 염송

『육자의궤염송』으로 재난소멸과 소원성취를 이루고,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육자의궤 염송의 순서와 방법, 그 의미' 와 함께
총지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진언수행의 목적', '각종 진언의 공덕' , '염주의 공덕' , '사원에서의 예절' ,
'서원당 예절', '불공 예절' 등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다양하게 싣고 있다.

※ '육자의궤 염송'에 대한 설명자료와 강의 및 시연은 총지종 홈페이지(www.chongji.or.kr) 심층밀교, 수행법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유물로 보는 밀교

국보 제75호 표충사 청동 은입사 향완
(表忠寺 靑銅 銀入絲 香垸)
소 재 지 :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31-2번지 표충사
시 대 : 고려시대

▲ 표충사 청동 은입사 향완

향완이란 절에서 마음의 때를 씻어준다는 향을 피우는데 사용하는 도구로서 향로라고도 부른다. 경상남도 밀양 표충사에 있는 청동 향완은 높이 27.5㎝, 아가리 지름 26.1㎝의 크기이다. 향완에 무늬를 새기고 그 틈에 은실을 박아서 장식한 은입사(銀入絲) 기술이 매우 세련된 작품이다.

향완의 형태는 주둥이 부분에 넓은 전이 달린 몸체와 나팔모양의 받침을 갖춘 모양으로, 고려시대의 전형적인 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전과 몸체가 닿는 부분을 둥글게 처리하고 받침 둘레의 가장자리에 얕은 턱을 만들어 안정감을 주었다. 높이나 너비의 비율도 거의 1:1을 이룸으로써 균형잡힌 비례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넓은 전 윗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있는 6개의 원 안에 '범(梵)'자를 은입사하였으며, 그 사이사이에 구름무늬를 장식하였다. 몸체에도 역시 굵고 가는 여러 선으로 원 안에 굵게 은입사한 '범(梵)'자가 4곳에 배치되어 있다. 받침에는 구름과 용무늬를 장식하였는데, 굵고 가는 선을 이용하여 능숙하게 표현된 용의 모습에서 고려시대 뛰어난 은입사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넓은 전의 안쪽 면에는 57자의 은입사로 된 글자가 있는데 내용으로 미루어 명종 7년(1177)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에 남아있는 향완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시대를 구분하는 자료로서 큰 가치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받침 안쪽에 새겨진 글을 보면 원래 이 향완이 있었던 곳이 현재의 표충사가 아닌 창녕 용흥사였음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표충사에 전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자료제공=문화재청

관세음보살 42수(手) 진언

28. 촉루장수(髑髏杖手) 진언

옴 도나 바아라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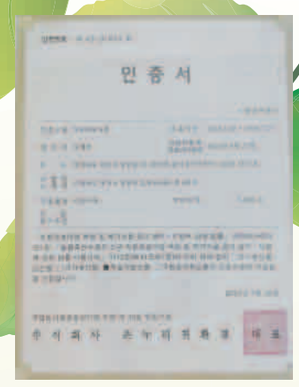
만약 일체의 귀신을 부리려거든
이 진언을 외우라

내용참조: "불교총전" 자기에 대한 덕의편 465p

100% 국내산
친환경 아로니아
(블랙 초코베리)

최상품 1kg 12,000원 무료배송

7월 25일부터 출하!!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성분 및 효능

●시력개선 효과 ●면연력, 기억력 강화 ●혈관질환 예방과 개선 ●노화방지, 다이어트 효과

지구상 현존하는 과수 중 안토시아닌 성분 (블루베리의 4배, 크린배리의 10배, 복분자의 20배, 포도의 80배)과 폴리페놀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연구결과 심혈관(동맥경화),뇌신경, 각종 암, 당뇨, 위장질환, 신경질환, 시력장애, 비만, 불임, 류마티스, 강장 등 강력한 황산화 작용을 통해서 면역체계를 형성하는데 큰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용방법

- 생과로 먹을 시에는 하루 20~30알 내외로 먹어주면 좋다.
- 요구르트나 우유 또는 꿀을 첨가해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맛있게 드실 수 있다.
- 분말로 드실 경우에는 따뜻한 물에 타서 먹거나 샐러드나 아이스크림 등 음식 먹을 때 뿌려 먹으면 된다.
- 원액을 마실 경우 30~50ml 를 매 식사 20~30분 전에 물에 타서 마시기를 권장한다.

대동농원
경북 영천시 청통면 호당리 896번지
연락처 010-3537-3090
사원 054-333-7950, 지현 010-5531-7950
불교총지종 단음사 신도: 정점락 각자

독립기념관, 중국 심양 9·18역사박물관에서 국제교류전 및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독립기념관(관장 윤주경)은 광복 71주년 및 일제의 동북침략(9·18) 85주년의 해를 맞이하여 중국 심양 9·18역사박물관 현지에서 국제교류전 및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교류전

먼저 국제교류전은 9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한인 항일투쟁'을 주제로 중국 심양 9·18역사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중국 동북의 중심지인 심양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재만 한인의 독립운동사 전시로, 독립기념관에서 제공한 사진 180여 점과 실물 복제자료 69건 76점, 동영상 4점으로 꾸며진다.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이회영의 중국식 의복과 독립군이 사용한 나팔, 한중공동작전을 제안한 조선혁명군의 서한 등이 전시되며, 우리 민족 최대의 항일 민족운동이었던 3·1운동이 영상홀로 마련되어 생동감을 더한다.

전시개막은 9월 1일(목) 오전 10시 중국 심양의 9·18역사박물관에서 윤주경 독립기념관장, 판리홍(范丽红) 9·18역사박물관 관장, 시처(史策) 심양시 문화방송신문출판국 박물관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국제학술심포지엄

다음날인 9월 2일 오전 9시부터는 독립기념관과 중국 9·18역사박물관,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이 공동으로 '1931년 일제의 중국 동북침략(9·18)과 한·중혁명세력의 대응'을 대주제로 하는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최근 일본은 지난 세기 자신들이 자행했던 침략적 만행에 대한 반성 보다는 이를 은폐·왜곡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일제는 1931년 9월 18일 중국의 동북지역을 침략했고, 1932년 3월에는 '만주국'이라는 괴뢰정부를 성립시켰다. 일본제국주의의 중국 동북침략을 계기로 한·중 양국의 혁명세력은 공동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했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끈끈한 우정을 쌓았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의 진정한 한·중 우의를 다지는 초석이 되었다.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은 일제의 침략적 만행을 학문적으로 세밀하게 규명하고 한·중 양국의 공동 항일운동의 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독립기념관은 이번 국제교류전 및 국제학술심포지엄을 통해 한중 양국이 일제의 침략을 종식시키기 위해 함께 투쟁했던 역사로부터 오는 따듯한 연대감이 동북아의 평화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양국 간의 우의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숨과 쉼이 함께하는 웰니스의 향연', 2016 대한민국산림문화박람회 개최

"가자! 꿈의 숲으로, 즐기자! 생명의 온천수"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주최하고 산림조합(중앙회장 이석형)과 예산군(군수 황선봉)이 주관하며, 충남도가 후원하는 '2016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이하 산림문화박람회)가 10월 21일(금)부터 30일(일)까지 열흘간 대표 온천 관광지이자 충절의 고장인 충남 예산군 덕산온천지구 일원에서 열린다.

'숨과 쉼이 함께하는 웰니스의 향연'을 주제로 열리는 산림문화박람회는 인간의 삶과 문화, 치유, 건강한 음식, 휴양 등을 중심으로 산림과 숲의 가치를 재창조하고 다양한 산림 정보를 제공해 국민이 마음껏 산림과 숲의 가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웰니스는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그리고 건강(Fitness)의 합성어이다.

이번 산림문화박람회는 어느 때보다 특별할 전망이다. 박람회 기간에 열리는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이하 온천대축제)와 연계해 숲과 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 행사로 개최된다. 이에 따라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되며 예산군의 다양한 건강 먹거리도 소개된다.

산림조합은 산림산업 위상을 높이기 위한 통합주제관과 산림정책 홍보관을 마련하고, 국내외 첨단 산림장비와 기자재, 임업 분야 6차 산업화를 위한 신사업 모델인 수목장림과 상조서비스 홍보관을 운영하며, 임산물의 새로운 소비 모델 창출을 위한 숲카페와 임산물 요리 레시피를 보급한다.

산주와 임업인을 위해서는 산림경영 컨설팅, 지속가능한 임업을 위한 산림 정보 등을 제공해 이번 박람회를 산림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산업박람회로 운영할 방침이다.

박람회 장소인 덕산온천과 온천대축제는 박람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숲에서 즐기는 힐링 온천욕과 온천수 물싸움, 힐링 터널, 족욕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숲의 날 숨은 인간의 들숨이 되고 인간의 날숨이 숲의 들숨이 되는 숨과 쉼의 '웰니스'박람회를 지향한다.

어린이·학생 관람객을 위한 상상 숲 밧줄놀이와 목재야 놀자! 상상목공체험, 감내 게 줄당기기 체험장, 산림곤충생태관, 온천수를 활용한 어린이 체험놀이 시설, 워터볼과 보트장 등도 준비된다.

우리 목재로 만든 생활목재 전시장, 매사냥 공개시연, 조류등 동물 보호를 위한 조수보호학습관, 곤충생태관 등의 다양한 볼거리도 관람객들을 맞을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전국 시·도 우수 임산물을 전시·홍보하는 판매장과 우리 임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 장터, 그리고 예산군의 맛과 멋을 체험하는 향토음식점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예산군 특산품인 명품 가을 사과를 이용한 사과와인, 사과파이와 같은 사과 가공품은 관람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가을의 문턱에서 만나는 우리 문학, '2016 문학 기행' 8월 31일 열려

한국 근대 문학 속으로

'2016 문학 기행'이 8월 31일 구상문학관(경상북도 칠곡군), 이병주문학관(경상남도 하동군), 한국근대문학관(인천광역시)에서 펼쳐진다.

문학 기행은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여 독자의 저변을 넓히고 문학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획되었으며, 지난 5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에 개최되어 문학을 깊이 있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문학 기행에는 각 문학관과 해당 작가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작가가 문학 가이드로 동행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우며, 문학 가이드와 함께하는 살롱 토크, 전문 해설사가 안내하는 문학관 투어, 당일 문학 기행의 내용과 관련한 문학 퀴즈, 손편지 쓰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또한 작가와 관련된 문학관 인근에 위치한 장소로의 투어와 문학관의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도 더해져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상문학관은 한국 현대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시인이자 프랑스 문인 협회가 선정한 세계 200대 문인 중 한 명인 구상 시인(1919~2004)의 업적을 기리고자 개관·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전시물을 통해 그의 생애와 집필 활동을 따라가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번 구상문학관 기행에는 구상선생기념사업회 이사 및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구자명(소설가), 중앙대 문예창작과 교수인 이승하(시인)가 문학 가이드로 동행하며, 가톨릭 집안에서 자란 구상 시인이 자신의 문학과 삶에 많은 영향을 받은 장소인 성베네딕도 왜관수도원을 둘러보는 시간도 갖는다.

한국근대문학관은 개항 이후 서구의 근대 문화가 집중적으로 들어왔던 항구 도시 인천의 창고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문학관으로, 한국의 근대 문학을 다양한 형태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한국근대문학관 기행에는 계간 '작가들'의 편집주간이자 신문과 격월간지에 시 비평 및 소개를 연재하고 있는 이설야(시인),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한 이원규(소설가)가 문학 가이드로 함께한다.

이병주문학관은 언론인이자 소설가로 80여 편의 방대한 작품을 남긴 나림 이병주(1921~1992)의 생애와 작품 세계, 정신을 두루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이병주문학관 기행에는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이자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인 김종회(소설가), 대구소설가협회 회장인 박희섭(소설가), 대구소설가협회장을 역임하고 2014년 대구문학상을 수상한 이연주(소설가)가 문학 가이드로 함께한다. 소설가 이병주의 시구들을 아름다운 선율로 만나는 '시, 노래 음악회'도 마련되며, 소설가 이병주에게 문학적인 영감을 준 장소인 다솔사도 둘러본다.

전회차 무료로 진행되는 문학 기행은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문장 사이트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구상문학관(35명)과 한국근대문학관(35명)은 서울에서, 이병주문학관(70명)은 대구 칠곡에서 출발한다.

문화재청,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등 9건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등 9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高敞 文殊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은 중앙에 인간 세계를 교화하는 석가여래를 중앙에 두고 좌우에 동·서방의 정토(淨土)를 다스리는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를 배치한 삼불형식을 보여준다. 삼불형식은 임진왜란·정유재란 이후 황폐해진 불교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신앙적으로 크게 유행하였다.

이 삼불상은 1654년에 벽암각성(碧巖覺性, 1575~1660)의 문도들이 주축이 되어 수조각승 해심을 비롯한 15인의 조각승이 참여하여 만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 시기 불교조각의 기준이 되는 작품이다. 통통한 양감이 강조된 인간적인 얼굴에 단순하고 기백 넘치는 주름 표현을 통해 조선 후기 불교조각이 추구한 평담(平淡)하고 대중적인 미의식을 잘 담아내고 있다.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奉化 淸凉寺 乾漆藥師如來坐像 및 腹藏遺物)'은 흙으로 형태를 만든 뒤 그 위에 삼베를 입히고 칠을 바르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해서 일정한 두께를 얻은 후 조각하여 만든 건칠불상이다. 이 불상에서 보이는 엄숙한 상호(相好), 당당하고 균형 잡힌 형태, 탄력과 절제된 선은 석굴암 본존불 등 통일신라 전성기 불상의 양식 계통을 따르고 있는데, 불상의 바탕층에 대한 방사선탄소연대 측정 결과도 이와 유사한 기원후 770~945년경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이 불상은 이르면 8세기 후반, 늦어도 10세기 전반에는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930년경, 보물 제999호)'과 함께 우리나라 건칠불상의 시원적 작품으로서 중요한 조각사적 의의를 지닌다.

'고창 문수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일괄(高敞 文殊寺 木造地藏菩薩坐像 및 十王像 一括)'은 삭발한 승형의 지장보살상과 제왕형의 시왕(十大王)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8 평등대왕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통해 1654년 3월 당시 불교계를 대표했던 벽암각성(碧巖覺性,1575~1660)의 문도들이 주도한 불사임을 알 수 있고, 조각승은 대웅전 석가여래삼불좌상을 만들었던 해심 등 15인의 조각승들이 모두 참여하였다. 본존인 지장보살상은 통통한 얼굴과 아담한 형태미가 두드러지며, 시왕상은 지옥중생을 심판하는 사실적인 연출과 함께 고색

'묘법연화경 권5~7(妙法蓮華經 卷五~七)'은 1470년(성종 1)에 세조비(世祖妃)인 정희왕후(貞熹王后)가 차남인 예종(睿宗)이 돌아가자 이미 고인이 된 세조(世祖)와 장자인 의경왕(懿敬王;德宗) 그리고 예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왕실판본이다. 조선전기 왕실판본의 사례로서 간행시기와 동기가 분명하며, 보존상태 또한 양호하고, 전래되는 같은 초기 인본(印本)이 극히 희소하기에 귀중하다.

서원성취를 위하여 진언염송과 함께 진언사경을 실천해보십시오

원하는 서원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

염음 : 법경 종사 (밀교연구소장) / 편찬 :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발행 : 불교총지종 / 인쇄 : 동림기획
면수 : 250쪽 / 법보시 가격 : 1권당 3,000원
구입문의 :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02)552-1080~3

16종의 진언사경집으로 일체재난을 소멸하고 일체서원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 서 원 사 항 >

1. 배우자 및 좋은 사람 만남 발원
2. 사업 원만 발원
3. 취업 원만 발원
4. 건강 원만 발원
5. 선망 부모 및 조상 영식 천도 발원
6. 학업 및 수능 시험 원만 발원
7. 업장 소멸 발원
8. 경제난 해탈 및 생활 향상 발원
9. 아기 잉태 원만 발원
10. 참회 발원
11. 가옥 등 재산 매매 발원
12. 관재 구설 소멸 및 승소 발원
13. 일체 서원 성취 발원
14. 지혜 총명 발원
15. 부부 및 가족, 동료 화합 발원
16. 병고소멸 및 수술원만 발원

정통밀교
불교총지종
Buddhist Chongji Order

제5회

통일음악예술제

"그치지 않는 통일의 노래"

2016. 10. 1 (토) 오후 6시

동해중학교 운동장 야외무대

문의 TEL. 051) 552-7901
www.chongji.or.kr

주최 불교총지종
주관 불교총지종 정각사
사회 이명학(부산불교방송총괄국장)
경연 혜원정사합창단, 진각종유가합창단, 금강암금소리합창단, 관음사환희합창단, 범어사합창단
공연 평양통일예술단, 동해중학풍물패, 비보이, 퓨전국악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동래구, 현대불교, 법보신문, 우리불교, BBS 부산불교방송,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주간불교신문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